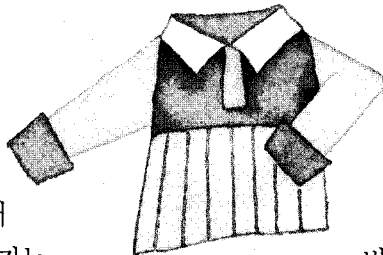


바나나 껍질로 새옷만들기!

www.tor.co.kr

신문지에 말아 가방에 넣으면 구김 안생겨

공식적인 출장을 겸한 장거리 여행이라면 간편복 몇 벌 외에 정장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 그러나 양복을 그대로 가방에 넣었다가는 구김 때문에 입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때 신문지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양복을 신문지에 둥글게 말아 두루마리처럼 감아 가방구석에 넣으면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게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된다.



두면 좋지 않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은 증기가 완전히 빠져 나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탁소에서 의류를 찾아오면 반드시 비닐을 벗긴 다음 통풍이 좋은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켜 옷장에 넣어두도록 한다.

방충제 냄새는 드라이어로 제거

옷장에 넣어 두었던 옷을 처음 꺼내 입을때는 방충제 냄새가 난다. 방충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옷장에서 미리꺼내 환기시켜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헤어드라이어를 옷 안에 넣고 5분 정도 찬바람으로 작동시키면 방충제 냄새를 간단히 없앨 수 있다.

방충제 2종이상 사용땐 옷에 얼룩

방충제에서 발산되는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퍼진다. 따라서 방충제는 옷장 바닥이 아닌 위쪽에 두어야 효과적이다. 또 2종 이상의 방충제를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 화학반응을 일으켜 의류에 얼룩이 지거나 변색된다.

가죽 표면 바나나 껍질... 새옷처럼 깨끗...

가죽점퍼, 구두, 핸드백 등과 같이 가죽으로 된 제품들을 대부분 타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타닌 성분이 들어있는 바나나 껍질의 미끈한 부분을 가죽에 대고 여러번 문질러주면 가죽이 새옷처럼 깨끗해진다. PPFK

완전히 말린 뒤 옷장 보관해야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비닐 커버를 씌워 가지고 온 의류를 그대로 옷장속에 넣어